

전자랜드, 1월 매주 수요일에 가진 최대 86% 할인

전자랜드가 1월 매주 수요일은 오프라인에서 '원데이 세일'을 진행한다. 밥솥, 에어프라이어, 청소기, 공기청정기, 전기그릴 등을 최대 86% 할인 판매한다. 행사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만 원 추가 캐시백 혜택도 준다. 31일까지 멤버십 신규 가입 후 가전을 구매한 선착순 5000명에게 마일리지 5000점을 지급한다.

정정욱 기자



금융 | 카드사 수장들의 2021년 경영 키워드

“카드사 넘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빅테크 금융 서비스 확대에 우려 커신한 “금융과 라이프 서비스 제공” KB “디지털 기술 역량 발전 필요”

2021 신축년 새해를 맞은 카드사 수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카드사 앱을 디지털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키우는 게 주요 골자다. ‘빅테크(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금융 서비스 확대가 예고된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쟁에서 밀리면 금융상품의 단순 제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낳은 언택트(비대면) 소비트렌드로 인해 모바일 플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왼쪽부터) 등 카드사 수장들이 2021년 경영 키워드로 디지털 종합금융플랫폼을 꼽았다.

랫폼을 통한 결제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경영 전략으로 ‘딥택트(DEEP-tact)’를 제시한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모바일 플랫폼인 신한페이판을 금융과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카

드, 금융, 신사업 등 전 사업에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넘버원 금융 플랫폼 구축’을 경영 키워드로 설정한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지난해 KB페이 출시, 리브메이트 업그레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인가 획득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본업 강화와 사업구조 효율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넘어선 모든 영역에서의 파괴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생존 과제”라며 “새 시대의 변화를 적극 이해하고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달 취임한 김정기 우리카드 신임 사장은 “2021년은 디지털 지급결제 금융사 도약 원년”이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한 전 부문의 디지털화를 경영 키워드로 제시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총수 일가 부당지원 KPX그룹, 공정위 철폐 수출 영업권 무상 제공…과징금 16억3500만원 부과

화학분야 중견기업 KPX그룹 계열사가 총수 회장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해 16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KPX그룹 계열사 진양산업에 과징금 13억6200만 원, 지원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진양산업은 2012년부터 스펀지 원·부자재인 PPG 수출 영업권 일부를 양규모 회장과 장남 양준영 KPX그룹 부회장이 주주로 있는 부동산임대 회사인 CK엔터프라이즈에 넘겼다. 2015년 8월부터는 수출 영업권 전부를 이전했다.

수출 영업권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는 2012~2018년 상품수출액으로 42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수익으로 지주사인 KPX홀딩스 지분 매입에 나섰다. 결국 PPG 수출 영업권이 양준영 부회장의 KPX 경영권 승계 발판에 이용된 셈이다.

공정위 측은 “CK엔터프라이즈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노력 없이 신규로 진입해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졌다”며 “대기업집단에 비해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KT, 보는 게임 서비스 ‘올레 tv 뷰플레이’ 출시

KT는 IPTV에서 보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올레 tv 뷰플레이’(사전)를 11일 출시한다. 게임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대화면을 통해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국내 대표 멀티채널네트워크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비롯해 아프리카TV 생중계와 KT롤스터 e스포츠 경기 등 1만여 편 이상의 콘텐츠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올레 tv 라이브 서비스 고객 중 UHD 셋톱박스, 기가지니, 기가지니 테이블 tv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레 tv 화면에서 뷰플레이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CES2021’ 사상 첫 온라인 개막…삼성·LG 신기술·신제품 선보인다

340개 한국기업 참가…美 이어 최다 삼성·LG, 홈코노미 신제품 경쟁 주목

글로벌 전자전시회 ‘CES2021’이 11일부터 14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지난해보다 참가기업이 크게 줄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등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340여개 기업이 참가해 행사의 한 축을 담당한다. 특히 국내 대표 가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기술을 앞세워 행사를 주도할 전망이다.

이번 CES의 핵심은 집이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문화와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바



LG전자의 CES2021 온라인 전시관.

뀐다는 ‘홈코노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높아진 집과 일상 속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전시에 나선다. 대표 상품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TV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TV’와 함께 미니 LED TV인 ‘네오 QLED’를 선보인다. L

G전자도 세계 최초 롤러블 올레드TV인 ‘시그니처 올레드’와 미니LED TV ‘QLED’를 출품한다. 또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가전’, LG전자는 ‘인스타뷰 냉장고’와 ‘오브제컬렉션’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 제품을 선보인다. 스마트폰의 경우 LG전자의 새 품

팩터(하드웨어 형태)폰 ‘롤러블’의 등장이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CES 기간에 ‘갤럭시S21’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모바일리더도 관심 끄는 분야다. 지난해 행사에서 주목받았던 현대자동차는 불참하기로 했지만, 삼성전자가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전장 부품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디지털 콕핏 2021’을 사전 공개했다. 로봇도 이번 행사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다. LG전자는 레스토랑, 병원, 호텔 등에서 사람을 돕는 ‘LG 클로이’ 로봇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CES 2021에 대거 참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CES 2021에서 97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케이-스타트업관’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도 사내의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을 통해 지원한 스타트업 21곳의 온라인 전시 참가를 돕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YouTube '성경 경제기부학' (1~10부) 시청 후 문의바람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반려동물(개, 고양이) 기본소득 150만원 평생지급

누구나 모두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한해 버려지는 반려동물 135,000마리, 하루 평균 32마리. 이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 가족으로 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는 1030세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을 살리는 신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입니다.

문의처

세계교회대혁신 '홍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강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한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곡장 010-7653-5373 / 이추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2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숙 010-5118-5263 / 임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최영민 010-4741-7008
● 초안고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규 010-8029-0059 / 임원환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권영희 010-4646-4950
● 울산 서명원 010-8003-5323 / 최태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욱 010-6258-3510 / 오영숙 010-3804-3424
● 인천 비준표 010-3227-0933 / 우만 홍원표 010-6717-1779 / 서동원 010-3489-4190 / 김보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허찬석 010-4707-2659
● 안성 010-5177-9479 ● 여주 정관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최만드래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리명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함태도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중국 충주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1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Hiubntu 1644-6733